

2008 새해설계 ③

포천시배드민턴협회 회장 양호식

‘배드민턴 빌리지’ 전용구장 설립 절실

전국제패 우수선수 배출 도시다운 시스템 필요



2008년1월17일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돼 2년의 임기를 시작한 하재인(57·사진)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지구협의회장은“한순간 실수로 어려움을 처한 청소년들이 본인의 실수를 깨닫고 열심히 노력하여 사회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예방위원회는 명예직 자원봉사자로서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 신망을 받으며 사회봉사에 열의가 있어야 하고, 신체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자를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범죄예방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 범법자에 대한 취업알선·재정지원 등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으로는 학교주변교통지도·순찰 및 유해환경 감시·계도, 학교폭력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활동 전개 및 청소년문화공간 조성 등 건전한 청소년문화활동을 지원하고 가두캠페인, 포스터 부착, 전단지 배포 등 범죄예방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는 선도 조건부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특별지도 등 선도활동으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프로그램(수강명령, 개시교육, 보호자교육 등)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재범 통제활동을 하고 있다.

범법자에 대한 취업알선·재정 지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회, 기타 사회자원 등 연계망을 구성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등 범법자의 자활·자립 지원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원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재범을 방지

하고 생계곤란대상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 등 의료시·약품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하 회장은 “중학생들의 우발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의 잘못을 깨닫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지도하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도한 결과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으로 성장할 때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에 대해 하 회장은 “전입 송년식 회장님이 고생하신 것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포천교육청과 협의하여 상담교사를 활용하여 학생상담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포천사회에서 존경받는 범죄예방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고취해 나갈 계획이며 불우시설 돌보기, 우범지역 순찰 등 고유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하 회장은 학교 운영위원들이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천교육청에서도 상담교사를 활용한 청소년 선도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8년 법무부 범죄예방 포천

지지구협의회 조직표는 다음과 같다.

▶고문 이한철 송순석▶회장 하재인 ▶감사 김원태 김영미▶사무국장 홍성철 ▶수석부회장 전영갑 ▶부회장 이병성 권중현 조광연 김호 최병욱▶상담지도 분과 박용구 이필하 윤봉현 채인석 지용림 고일권 이기양 김연경 김상호 ▶소년선도분과 박도식 박정기 이원주 윤석준 박상국 송진복 우용철 장명수 노승현 ▶경생보호분과 김남정 한태환 강성길 이흥구 고형진 이영주 추상식 정대연 김효섭 ▶보호관찰분과 송현섭 임두빈 김상복 김병영 이동운 김수인 김지희 박영여 김중천 ▶여성지원분과 박정희 김정호 김영수 신현욱 전인숙 이재숙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이야기 한마당



이보웅 본지지원위원장

많은 학생들과는 달리 돈이 없어서 저만치 떨어진 곳에 혼자 서 있는 학생 하나가 있었다.

“학생, 이리 와요. 사과 하나 줄 테니 와서 먹어요.” 가게의 여주인은 가난한 그 학생의 사정을 알고 만날 때마다 불려서 이렇게 사과 하나씩을 주었다.

그 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사과가게 여주인은 그 사이에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과를 팔고 있었다.

어느 날 장교 한 사람이 그 사과 가게를 찾아왔다. “할머니, 사과 한 개만 주세요.” 장교는 사과를 맛있게 먹으면서 말했다. “할머니, 이 사과 맛이 참 좋습니다.”

나폴레옹과 사과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그 장교에게 앉으라고 의자를 권하였다.

“군인 양반, 자랑 같지만 지금의 황제이신 나폴레옹 황제께서도 소년사관학교 시절에 우리 가게에서 가끔 사과를 사서 그렇게 맛있게 드셨지요. 벌써 30년이나 지난 이야기지만...”

“내가 듣기로는 그 때 그 학생은 가난해서 늘 할머니께서 사과를 그냥 주셔서 얻어먹었다고 하던데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필적 뛰면서 “아니오, 그건 군인 양반이 잘못들은 거예요. 그때 그 학생은 반드시 돈을 꼭 꼭 내고 사 먹었지요. 한번도 그냥 얻어먹은 일은 절대 없었어요.”

할머니는 나폴레옹 황제가 소년 시절에 겪은 어려웠던 일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은 듯 이렇게 극구 부인하였다.

그러자 장교는 다시 물었다. “할머니는 지금도 황제의 소년 시절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옆으로 저으면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난했던 그 학생에게 동정을

베꼈던 옛날의 추억을 더듬는 듯 했다.

그런데 이때 장교는 갑자기 먹든 사과를 의자에 놓고 일어나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제가 바로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예? 당신이 나폴레옹 황제라고요?”

“예, 제가 바로 30년 전에 돈이 없어 사과를 사먹지 못할 때 할머니께서 가끔 저에게 사과를 주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그때의 사과 맛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그때 그 사과를 먹으면서 언젠가는 할머니의 은혜를 꼭 갚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두 손을 잡힌 채 어찌할 줄을 모르는 할머니 눈에선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폴레옹 황제는 금돈이 가득 들어 있는 주머니를 할머니 손에 쥐어 주면서 말했다. “할머니, 이것은 저의 얼굴이 새겨진 금 돈입니다. 이 돈을 쓰실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문의 011-342-5834)

‘우리는 오뚜기 형제’

육군 8사단 조교와 훈련병으로 형제 만나

형제가 한 부대의 조교와 훈련병으로 만나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동생은 폴린성 두드러기라는 피부병 때문에 해군으로 입대했다가 귀가한 후 다시 군에 입대한 후 형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육군 8사단 신병교육대대 조교 백승훈 이병(24)과 백승돈 훈련병(21).

형 백승훈 이병은 대학을 졸업하고 07년11월에 8사단 신교대대에서 신병교육을 받았다. 신병교육을 이수한 성격으로 마친 백 이병은 바로 신교대대 조교로 선발되어 개인화기 조교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08년1월, 306보충대로 입대한 동생 백승돈 훈련병이 8사단 신교대대로 분류되면서 형제가 한술밥을 먹게 된 것이다.

사실 백 이병은 05년3월에 해군으로 입대하였으나 평소 앓고 있던 ‘폴린성 두드러기’가 악화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한의 남이런면 꼭 군대에 가야한다’는 무절한 책임감과 나라 사랑 정신으로 피부병을 치료하고 다시 군에 도전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군에서 만난 형제의 감회는 남다른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형은 교육 중 틈틈이 선배로서, 형으로서 군 생활의 노하우를 동생에게 전수하고, 동생은 든든한 마음으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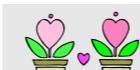
백 이병은 “밖에서 동생을 볼 때는 마냥 어린 아이 같았는데, 이렇게 군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아주 든직하고 늠름해 보인다”며 동생



형제가 한 부대의 조교와 훈련병으로 만나 화제가 되고 있는 육군 8사단 신병교육대대 조교 백승훈 이병(24)과 백승돈 훈련병(21).

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에 백 훈련병은 “이번 설에는 가족들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형과 같은 부대에 있게 되어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2월 12일에 신병교육을 마치고 자대배치 받으면 형처럼 멋진 오뚜기 용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설명절 앞두고 사랑의 손길 다양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쌀 100포 전달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포천시지부장 황일현)는 1월30일 포천시청을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쌀 100포(50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이 자리에는 황일현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과 수혜대상자인 김창언 노아의 집 원장, 김성심 임마누엘의집 원장 등이 참석했다.

포천시는 사랑의 쌀을 노아의 집과 골두리두레마을, 임마누엘의 집에 각 5포씩, 관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8포씩을 전달할 계획이다.

포천동 사랑의 만두만들기 행사



설을 맞아 포천동새마을부녀협의회(회장 김정숙)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정광연)는 1월29일

포천동 주민센터 식당에서 독거노인 70명에게 전달할 만두와 떡을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20명의 부녀회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참여하였으며 만두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재료비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체육회, 여성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대한적십자포천은혜나무봉사회에서 5만원씩 분담하여 비용을 마련했다.

이날 만든 만두와 떡은 2월 1일 단체별로 독거노인 5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만두 30개와 떡 1kg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여성대학 동아리연합 170만원 기탁



포천시 여성대학 동아리연합(회장 손명자)은 1월30일 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성금 170만원을 전달했다. 포천시 여성대학 동아리연합은 지난 2007년 여성주간행사에 열린장터를 열어 판매수익으로 이 기금을 조성하여 기탁했다.

창수면 이웃과 떡 나눔 행사

포천시 창수면 직원 및 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백중현)는 2월4일 민속명절(설)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 하는 떡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떡국떡과 양말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매년 동절기 및 연말연시 독거노인과 저소득 청소년 가정을 방문하여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등 솔선수범 하는 단체로서 올해 설을 앞두고 창수면 직원들과 함께 홀로 사는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가정 등 40가구에 1가구당 떡 1박스(3kg)를 만들어 전달함과 더불어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위문 활동 등을 전개했다.

군내면 설맞이 불우이웃돕기 실시



포천시 군내면 소재 기관단체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212세대를 방문하여 쌀, 과일 등(30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번 불우이웃돕기 행사는 군내

면 남여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군내면 방위협의회, 군내면 공무원 등이 기증한 물품으로 경제가 어려워 몸도 마음도 움츠러 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뜻을 함께하여 기관·단체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지역주민들과 훈훈한 인정을 나누는 행사로 이루어졌다.

포천시 가산면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



포천시 가산면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효의 고장 ‘가산’의 정을 느끼게 했다. 가산면 관내 독거자 및 기업체들은 4일 쌀 135포(10kg)를 기증, 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 135가구에 전달했다.

또한, 가산면새마을부녀협의회(협의회장 정교분)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협의회장 이상민)는 만두 및 떡, 김 등을 홀로 명절을 맞이할 독거어르신들(50가)에게 전달했으며, 가산면직접자봉사단(회장 이금숙)도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20가구에 만두와 떡, 한과를 전달했다.

전기안전관리 등불 ...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 안병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전기설비의 점검 및 진단

최첨단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점검대상 : 학교, 관공서, 빌딩, 공장 등 자가용 전기설비



분전반내 부하점검



변압기 부하점검

고객의 전기시설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업